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남경문 베드로 (1796-1846)



서울의 중인(中人) 집안에서 태어난 남경문은 20세 때 교우 허 바르바라와 혼인하였다. 한 번은 큰 병에 걸렸는데 그때 대세를 받고 회복한 후에는 교우회장이 되었다. 그는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체포됐다가 배교하면서 석방되었는데, 이후 첩(妾)까지 거느리며 3년 동안 방탕하게 생활하였다. 하지만 결국 교회로 다시 돌아와 김대건 신부에게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한 뒤, 과거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극기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웃 교우들에게는 순교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병오박해가 일어난 1846년, 남경문은 임성룡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당시 그는 금위영(禁衛營)의 군인이었으므로 더욱 혹독한 형벌과 유혹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모든 걸 이겨 낸 다음 마침내 9월 20일, 6명의 교우와 함께 교수형을 받아 51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성화_하귀분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15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17(16), 15 참조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흠족하리이다.

제1독서 아모 7, 12-15

화답송 시편 85(84), 9ㄱㄴㄷ과 10. 11-12. 13-14(◎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에페 1, 3-14 <또는 1, 3-10>

복음 환호송 에페 1, 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마르 6, 7-13

영성체송 시편 84(83), 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초심의 회복을 촉구한 예언자 아모스



트코아 유적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8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트코아 유적에서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 아모스(아모 1,1)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어근은 ‘짐을 운반하다’ ‘나르다’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수동형으로서 ‘(주님의) 지지를 받는 자’ ‘(주님에 의해) 보호받는 자’로 풀이됩니다. 이는, 아모스가 태어났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주시기를, 그가 사는 동안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원하며 붙인 이름일 터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아모스는 「예언서」의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앞선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경 목차에는 이사야서가 예언서 중 제일 앞에 나오므로 이사야가 가장 먼저 활동한 듯 보이지만, 연대로는 아모스가 더 빠릅니다. 아모스 신탁의 분량이 적은 탓에 - 물론 다른 요인도 작용하였지만 - 열두 소예언서에 포함되며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모스는 ‘문서 예언자’의 선두에 해당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등은 본인 이름으로 된 예언서 없이 역사서 안에 등장하지만, 아모스 때부터는 예언자들이 전한 신탁이 따로 수집되어 글로 엮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들을 ‘문서 예언자’라 칭하여 이전 예언자들과 구분하는데요, 이 가운데 최초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또한 역사서 안의 예언자들보다 후대에 활동하였다는 뜻으로 ‘후기 예언자’라고도 일컫습니다.

전기와 구분되는 후기 예언자의 출현에는 그만한 배경이 존재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의 평등 사회였지

만,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1사무 8,11-18) 왕정과 함께 귀족층이 출현하자 변화가 생깁니다. 하느님께서 공정과 정의를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부유층이 땅을 독식하며 약자를 착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이사 5,8; 아모 2,6). 예언자 무리도 이런 기류에 편승해 예언을 밥벌이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민생을 우선시 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이익 집단으로 변질된 것이죠(미카 3,5.11). 이렇듯 사회적 불평등과 종교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비판의 소리를 높이며 등장한 이들이 바로 후기 예언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앞선 아모스는, 자신이 돈 받고 예언하는 직업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아모 7,12-14). 그보다 조금 이후 활동하게 되는 미카도, 돈 되는 걸 쥐어 주면 듣기 좋은 신탁을, 아무것도 안 주면 나쁜 신탁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질책하였고(미카 3,5.11), 미카와 동시대 예언자 이사야 역시 공정과 정의는 실천하지 않고 비싼 제물만 바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을 꾸짖었습니다(이사 1,10-17). 말하자면, 아모스를 필두로 한 후기 예언자들은 모세와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의 참된 대변자가 되려고 노력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지도 않은 백성을 일부러 찾아가 신탁을 전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후기 예언자의 첫 인물인 아모스, 그의 고향 트코아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도 초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게 해주어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라는 가르침을 되새겨 보게 합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構想)하고 싹트게 하기 ⑧ - 재산(재화)의 사회적 역할을 재구상하기

교회의 사회교리는, 모든 재화가 모든 사람의 존엄한 생활을 위해, 또 온전한 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 존재하므로 거기엔 나름의 사회적 목적과 역할이 내재(內在)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창조된 재화의 공동/보편 목적의 원리’라고 하며, 여기엔 지상 재화의 공동 사용의 원리와 그 권리가 포함됩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게 하는 데 있어 재화의 공동 사용의 권리가 인위적으로 구축된 국경(國境)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121-123항)고 제안합니다. 우선, 출생지나 거주지 때문에, 특히 더 많은 기회의 땅에서 태어난 다른 누군가의 특권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품위 있는 발전의 기회를 더 적게 누릴 수밖에 없다면, 이는 부당한 일입니다. 마치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더 적은 권리를 지니고 차별받는 게 부당한 일인듯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산업화’가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품위 있는 생활과 온전한 발전을 위한 기회가 상당 수준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또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심지어 국제 관계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다른 나라

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저해하고 억제하여 그 나라의 국민을 빈곤 상태로 내몬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나’에게 이로움이 되지만 ‘남’에게 해로움을 안기는 행위를 우리는 ‘비윤리적’이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세에서나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마태 7,12)라는 ‘황금률’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규제 철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역설하는 일부 사람들의 특권이나 시장의 자유가 결코 국민의 권리, 가난한 이들의 존엄, 자연환경의 존중을 대체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발전은 소수에 의한 부의 축적과 할당(割當)이 아니라, 발전·환경·평화권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 모든 국민의 권리는 물론 사회·경제·정치적 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권리 보장을 지향합니다. 이 참된 발전이라는 지평에서, 사업(기업)가의 능력과 활동은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소명이 됩니다. 그들의 능력과 활동으로 부를 증대시키는 경제·기술적 수단을 찾아내고 재화를 많게 하여 세상의 개량(改良)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양화된 노동의 기회를 창출하여 다른 사람들의 발전에,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빈곤 제거에 이바지하여 사회적 우애를 실질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루카 15,28)

원인불명의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환자는 병원에 들어와 있으면 몸이라도 편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남동생과 엄마 때문에 속상했던 일이 더 자주 떠올라 힘들다면서 지난 몇 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환자는 십여 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과 상의하여 친정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노환으로 점점 힘들어하시더니 이제는 늘 곁을 지켜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셨다. 하필이면 환자도 원인불명의 어지럼증이 생겨서 어머니를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남동생 내외가 찾아와 환자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들네 집 근처 요양원으로 모셔가겠다고 하였다. 환자의 어머니는 딸의 속도 모르는지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러겠다고 하셨다. 그때 환자는 화감에 ‘동생 따라가서 아무 요양원에나 들어가 버리라.’고 쏘아붙이기까지 했으니, 자기가 봐도 참 나쁜 딸이라며 자책했다.

환자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나쁜 딸이라고 자책했지만, 실상은 사랑하는 엄마를 먼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듯 보였다. 그래서 물었다. “지금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환자가 대답했다. “동생네 근처 요양원은 저한테 너무 머니까 우리 집 근처로 모시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동안 한번 찾아오지 않던 동생이 자기네 집 근처라고 해서 갑자기 엄마를 자주 찾아갈 리도 없고, 저는 조금만 차를 타도 너무 어지럽고…. 엄마가 그렇게 요양원에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실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렇게 엄마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데 엄마는 어떤 마음에 아들의 말만 들으셨을까요?” 환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다가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래도 엄마가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하겠다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엄마처럼 저도 동생을 믿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처음에 환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탓에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딸이라고 자책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가장 큰 걱정 또한 어머니였다는 점에서 사실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이후 환자는 자연스레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어느새 동생을 믿어 주려는 어머니의 마음에까지 가닿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알아차렸을 땐, 그를 둘러싼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미안한 만큼 사랑하는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마음에 가닿은 환자를 나의 스승으로 보내주셨다. 또한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루카 15,32)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 ☺



교구 소식

제29회 농민주일 기념미사 및 직거래 장터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되새기고, 여기에 동참하는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합니다.

일시 7/21(주일) 11시 [직거래 장터 09시~14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31-850-1491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월간성서 <7월호>

주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총 (에페 1,3-14)

강사 김재덕 신부 (대전교구, 로마 교황청립 성서대학)

일정 7/4(목), 11(목), 18(목) [총3회 업로드]

유튜브 채널 시청 ▶



의정부교구 제142차 ME 주말

날짜 7/19(금)~21(주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4515-3854 의정부ME

청소년사목국 통합 카카오톡채널 오픈

새롭게 단장한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로 초대합니다.

오픈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채널 ▶



※ 기존 UJB어린이사목부·UJB청소년사목부·UJB청년사목부 채널은 운영이 종료됩니다.

제32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안내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공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8/23(금) 19시 ~ 25(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가정기도 <감사> 제4기 신청

30~4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90일 기도 프로그램

기간 8/3(토)~10/31(목) [90일]

대상 30~40대 기혼자 (부부 또는 개인)

회비 1만원 (가정기도 감사 노트 제공)

접수 7/20(토)까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미사 · 피정 ▶▶

7월 고양-파주 평화지기 월례미사

일시: 7/16(화) 20시 (매월 셋째 화요일)

장소: 백석동 성당 2층 대성당

대상: 평화사도, 민족화해분과장·위원,
평화와 환경 보존에 관심있는 교우 누구나

지혜의 샘 여름특강 캠프

히브리어 알파벳과 창세기 통독 [무료 6주 과정]

일시: 7/24~8/28, 매주(수) 19시~21시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 샘

강사: 서한석 신부 (가톨릭대 학부대학장)

문의: 010-3248-9705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7/19(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 (인천교구 해양사목)

문의: 010-2127-0032

가정회복은혜의 낮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7/15(월) 13시~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교육

올라오는 화, 어떻게 다룰까: 분노의 여파와 처리

일시: 9/9(월) 11시 ~ 11(수) 14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강사: 김효성 수녀 (성심수녀회)

문의: 010-9099-2337

ICPE SONE 새로운 복음화학교

날짜: 8/13(화)~18(주일), 수원 양지 영성교육원

대상: 가톨릭 신자 (예비신자 가능)

문의: 010-5531-1008, ICPE카톡플친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7/26(금)~8/3(토), 8/23(금)~31(토)

효소단식: 8/9(금)~12(월)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8/15(목)~17(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8/24(토)~25(주일), 9/21(토)~22(주일)

3박4일: 7/18(목)~21(주일), 7/25(목)~28(주일),

8/1(목)~4(주일)

8박9일: 8/8(목)~16(금), 9/2(월)~10(화)

40일: 10/4(금)~11/12(화)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8/2(금), 매월 첫(금) 10시~15:30

수요 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대침묵피정: 8/16(금)~18(주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목)~25(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7/19(금)~22(월), 8/16(금)~19(월)

9/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일일피정

일시: 7/21(주일) 10시~16:30

(매월 셋째 주일, 09시 미사 참석 가능)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미아동 본원)

내용: 강의, 성체조배, 자기보기훈련

회비: 3만원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우도해변포함: 8/6(화)~8(목)

8/13(토)~16(화), 8/24(토)~26(월)

추자도포함: 9/11(수)~14(토)

자연순례: 9/2(월)~4(목), 10/1(화)~3(목)

접수: 064-796-4182, 02-773-1455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현장 및 비대면 강좌 - 9월 개강

그리스도교와 불교간의 대화:

현장강좌 - 매주(화) 14시~16시

영원의 신학자, 발타사르:

현장강좌 - 매주(수) 14시~16시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현장강좌 - 매주(수) 10시~12:30

- 비대면 동영상 강좌:

화·목·금요일: 19:30~22시 (13주 과정)

※ 금요일은 20~30대 청년 대상

영성과 철학상담

- 비대면 동영상 강좌: 매주(화) 19시~21시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s.kr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전화: 02-2274-1843~4, www.cdcc.co.kr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분야: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742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들>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or.kr

대건카리타스-조이빌리지(중증발달장애인가족지원)직원 모집

분야: 사회복지사(교대근무) - 만 60세 이하

주소: 파주시 광탄면 심곡로 76-25

문의: 031-947-2720

	수도회명	대상	장소	문 의
성 소 모 임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7/20(토) 14시	개화동 수도원 (서울)	010-3800-1579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만 45세 이하 독신여성 (예외 상담가능)		010-3355-4997, 010-8669-6383

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 모집

모집: 사제식당 조리원 (계약직)
문의: 02-740-9707~8
※ 자세한 사항은 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2025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학 수시모집

모집: 조형예술대학, 간호대학, 자유전공
접수: 9/9(월)~13(금) 18시까지
전형: 학생부교과, 면접, 실기 반영
문의: 032-830-7022 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직원 모집

분야: 생활재활교사(여) ○명, 채용시까지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031-965-0028 해밀
※ 자세한 사항은 www.haamil.or.kr 참조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분야: 편집
서류: 입사지원서 (홈페이지-본사양식)
접수: hr1886@catholicbook.kr
문의: 02-6365-1829
※ 자세한 내용은 catholicbook.kr 공지사항 참조

**안내 · 기타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0/7 동유럽, 발칸, 메추고리에 (13일)
10/16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1일)
10/21 산티아고 118km 도보 순례 (12일)
11/21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지 (10일)
12/20 이탈리아 일주 (10일, 정기 하년 전대사)
문의: 02-319-2533, www.catholictravel.co.kr
명동 가톨릭회관 619호

일본 가고시마 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21(토)~26(목) 베트남, 마카오 (172만원)
10/10(목)~19(토) 서부지중해 크루즈 (539만원)
10/15(화)~26(토) 산티아고 도보순례 (48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KakaoTalk **플러스친구****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천주교의정부교구



우리 교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교구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창세기에 담긴 하느님의 약속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손희송 | 가톨릭출판사 | 240면 | 16,000원
문의 | 02-6365-1864 가톨릭출판사

도/서/소/개

희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희망을 갖는다는 것!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 첫 인간과 낙원, 아담과 하와와 범죄, 카인과 아벨의 비극, 노아의 홍수, 바벨탑의 붕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등 창세기의 다양한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바라본 책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창조주 하느님, 희망의 근거’, 제2장 ‘하느님, 인간의 근원’, 제3장 ‘자비의 하느님, 죄인의 희망’

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죄, 하느님 은총의 역사를 살펴본다. 제4장 ‘아브라함,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희망의 등불’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사악,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을 믿고 희망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들

그리스도교는 2,000년의 역사에서 박해를 겪기도 하였고,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에서 인류 문명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상징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신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대표적인 상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Ω :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A)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Ω)는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과 역사의 시초부터 종말까지 다스리신다는 뜻으로 그분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해 부활초에 이 두 글자가 새겨지는 이유입니다.

I.N.R.I. : 요한 19,19에는 로마 총독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Iesus Nazarenus Rex Iudaeorum)라고 쓰인 명패를 달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라틴어로 Iesus는 ‘예수’, Nazarenus는 ‘나자렛 사람’, Rex는 ‘임금’, Iudaeorum은 ‘유다인들의’라는 뜻입니다. I.N.R.I.는 이 구절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물고기 ([익튀스], ΙΧΘΥΣ) : 로마 박해 시대에 신자들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암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많이 사용된 것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Ιησούς Χριστός Θεου Υιός Σωτήρ)의 첫 글자로 이뤄진 단어입니다.

✠ : [키로]는 구세주를 뜻하는 그리스어 [크리스토스] (ΧΡΙΣΤΟΣ)의 첫 두 알파벳 X[키]와 P[로]를 따서 만든 표시입니다.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초기엔 흔한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crucifixio)은 화형(crematio)과 맹수형(dammatio ad bestias)과 함께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으로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해 시기 카타콤베에 남겨진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물고기, 비둘기, 양을 엮은 목자의 모습 등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306~337년 재위)가 십자가형을 폐지한 이후, 350년경부터 비로소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성물의 소재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산 칼리스토 카타콤베 내 벽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의 의미를 알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